



설

명절 예배 순서지

목 도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시편 23:1-2)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복69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시편 121장 1-2절** 다함께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설 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새해** 인도자

오늘 우리는 새해 첫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짧은 본문이지만, ‘지키신다’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깊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고백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길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며, 영원히 지켜 주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이 세상의 걱정과 문제로만 가득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홍해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섰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 세워줍니다.

새해 결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합니다. 환경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확신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아멘!”

찬 송 579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함께

-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